

문금동 소설 <아부지와 홍범도>에 나타난 1920년대 초 연해주(沿海州)의 독립군 형상화 연구*

- 술발관 군대를 중심으로 -

김현주**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1920년 ‘4월 참변’과 술발관 군대의 활약
3. 작품에 나타난 사회주의 지향 양상
4. 나가는 말

【국문초록】

본 작품은 문금동 개인의 회고록이자 독립군에 대한 애도(哀悼)의 서사로서, 연해주 독립군의 활약뿐 아니라 이들이 러시아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며 공존을 모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920년 ‘4월 참변’ 당시에 결성된 공산주의 성격의 술발관 군대가 민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일제에 저항하였음

* 이 논문은 2022년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칼리지 조교수

을 보여준다. 또한 러시아 혁명 세력인 붉은 군대와 의 연대 및 계급투쟁 의지를 고취 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정치적 지향을 강화하고 있다.

본고는 문학적 소재로 처음 등장한 솔밭관 군대에 주목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사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작품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구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유이민 문학사 연구 및 러시아 소비에트 시대 고려인의 정치의식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솔밭관 군대, 연해주, 4월 참변, 독립군, 항일무장투쟁, 사회주의

1. 들어가는 말

문금동(1912~1992)은 러시아 연해주(沿海州) 출신의 고려인 작가로, 그가 남긴 작품은 장편소설 〈인정루〉(1~5권)와 자전적 소설인 〈아부지와 홍범도〉 두 편이 있다. 그는 어린 시절인 1917~1922년에 러시아 내전을 겪었으며, 청년이 된 1937년에는 강제 이주를 당하여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노동자로 살아갔다. 말년에는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산베에서 살다 1992년 타지키스탄 내전이 일어난 해 타계하였다. 이러한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문금동은 틈틈이 작품을 썼으며, 1986년에는 출판을 위해 모스크바 소련과학원 동방연구소의 콘체비치 박사를 찾아가 작품 원본을 맡긴다. 이는 고려인 연구가 고송무에게 전달되었다가¹⁾ 이후, 콘체비

1) 그의 생애 및 출판 노력에 대해서는 고송무, 『조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이론과 실천, 1990. 타치아나 심비르체바-임경화, 「고려인 작가 문금동과 그의 장편소설 『인정루』 소개 및 시론적 고찰」,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치가 한·러 역사를 연구하는 타치아나 심비르체바에게 건넸고, 이것은 다시 2005~2006년경에 모스크바 주재 삼일문화원의 이형근 목사에게 전달되어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다.²⁾

문금동의 작품은 모두 한글 자필로 쓴 것으로, 함경도 지역에서 영향을 받은 고려인의 언어양상 및 역사문화 의식을 탐구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근래에 〈인정루〉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³⁾ 〈아버지와 흥범도〉(1987)에 대해서

『한국학연구』 제35집, 2014, 참조.

- 2) 이형근의 증언에 의함. 작품 원본은 현재 이형근이 보관 중이며, 작가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곳에 기증할 계획에 있다. 문금동의 자필이 유려하여 한글 서체 디자이너인 안상수에게 연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작품은 그동안 출판을 위해 애썼던 콘체비치 덕분에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다. 콘체비치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연구한 사람으로, 이형근의 주선으로 한글문화 훈장을 받은 적이 있다. 현재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다. 이형근과 타치아나 심비르체바는 문금동의 장남인 문계라심을 만나 인터뷰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중이었으며, 인터뷰도 병원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생사 여부는 알 수 없다. 아버지 문금동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문금동이 재혼하여 얻은 아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말년에 문금동이 살았던 타지키스탄 두산베에는 고려인이 많이 살고 있었으나, 1992년 내전 당시 볼고그라드로 상당수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의 이형근 인터뷰, 2021년 11월.
- 3) 선행연구에서는 〈인정루〉가 인정(人情)소설류의 전통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전통을 사회주의적인 이념 속에서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밝혔다. 타치아나 심비르체바-임경화, 앞의 논문. 또한 구술문학의 양식적 특징 및 국내외 고전 작품의 변용 양상에 집중하여 문금동 문학의 특수성과 고려인의 정체성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현주, 「〈인정루〉의 '고담(古談)'에 나타난 한국 전통설화 변용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142집, 2018.; 김현주, 「문금동 소설 〈인정루〉에 나타난 가족 이별과 재회 양상에 관한 연구 -재회 장면의 〈춘향전〉 변용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94호, 2021.; 김현주, 「소설 〈인정루〉의 고담(古談), 〈아버지와 금봉어〉 연구 -그림형제의 〈어부와 아내〉와 푸시킨의 〈어부와 물고기 이야기〉 변용을 중심으로-」, 영주어문학회, 『영주어문』 49집, 2021. 이외 논의로 김현주, 「문금동 소설 〈인정루〉 연구」,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 77집, 2017.; 김현주, 「문금동의 장편소설 〈인정루〉에 나타난 금기위반 양상에

는 아버지와 홍범도 인물형상화의 특징을 통해 이들이 고려인 사회에 지니는 상징적 의미 및 작품의 기록문학적 가치를 논한 바 있다.⁴⁾ 본고에서는 이에 나아가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솔밭관 군대(솔밭관 한족공산당)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연해주 독립운동의 문학적 형상화 측면에서 본 작품이 지닌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부지와 홍범도〉는 1920년대 초의 연해주 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당시는 일제의 세력 확장과 침략이 노골화됨에 따라 여러 독립 단체들이 결성되어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던 때이다. 솔밭관 군대도 이 가운데 하나로, 1920년 ‘4월 참변’ 무렵에 결성되어 활약한 공산주의 성격의 항일무장단체이다. 이들의 활동은 “1917년 후 원동 각처에서 발흥된 고려인 의병운동 중에서 특필할 만한 5대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⁵⁾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독립전쟁인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에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이외 독립단체들은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솔밭관 군대의 경우, 흩어진 채 부분적으로 언급돼 있는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적 성격 등으로 그 활동의 중요성에 비해 역사학계에서도 독자적으로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⁶⁾ “북한 역사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단체의 존재와 활

관한 연구 -과부(寡婦)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언어학회, 『어문론총』 77호, 2018.이 있다.

- 4) 김현주, 「문금동의 자전적 소설 〈아부지와 홍범도〉 연구」,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79집, 2018.
- 5) 임경석, 「연해주 솔밭관 한족공산당에 관한 일고찰」, 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編, 『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Ⅱ』, 나남, 1997, 684쪽.
- 6) 본격적인 연구로 임경석, 위의 논문이 있으며, 반병률이 최근 저서(『항일 혁명가 최호림과 러시아지역 독립운동의 역사』, 한울, 2020.)에서 그간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솔밭관 군대에서 활약한 인물과 활동 등을 정리한 바 있다.

동상은 주목받지 못했다.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북한 정권 창출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수령의 유일혁명전통과 무관한 이 운동경험을 역사서술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22년 중엽 이후 러시아공산당 연해주당 고려부 산하 추풍구역 위원회라는 위상을 갖게 된 이후, 이 단체는 점차 러시아화했다.”⁷⁾ 즉 이들의 활동은 러시아 혁명세력인 붉은 군대의 승리 및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 건설에 기여하였으나, 고려인이 소수민족으로 러시아 사회에 융합됨에 따라 러시아에서도 독자적인 활동 단체로서의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및 고려인 문단에서도 솔밭관 군대를 소재로 한 작품은 찾아볼 수 없으며, 현재로서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부지와 홍범도〉가 유일한 실정이다.

본 작품은 1920년대 초 솔밭관 군대의 활약을 소재로 삼고 있어 당시 연해주의 정치적 정황과 항일무장 투쟁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겠다. 문금동은 오래전 기억을 토대로 솔밭관 군대와 민가의 협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군대의 활동 시기는 그가 만 8~10세 되던 해로, 거의 7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 본 소설을 집필한 것이다. 그럼에도 독립군의 실체와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재현되고 있는데, 이는 세월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상당한 기억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문금동 개인의 기억으로 머물렀다면 이처럼 상세히 기록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그는 작품 서두에서 “나는 어리었을때경과한 사항을 잊을수 없어요.”⁸⁾라는 말로 시작한다. 작품에 그려진 사건들은 문금동 세대가 공통으로 겪은 일이다. 말하자면 공동체의 잊을 수 없는 정치적 부침과 민가의 삶이 수십 년간 구술방식으로 회자

7) 임경석, 위의 논문, 685, 722쪽.

8) 문금동, 『아부지와 홍범도』, 현대문화사, 2017, 1쪽.

되고 공유, 전승됨으로써 고려인 사회에 집단기억으로 면면히 살아남았으며, 이것이 작가 개인의 기억과 함께 작품 창작의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문금동 문학의 구술문학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도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아부지와 홍범도〉는 연해주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공적 기록을 보완하는 일반 고려인의 삶의 증언이라는 점에서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작품의 자료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작품에 나타난 솔밭관 군대의 활약, 그리고 고려인 사회 내 계급모순에 대한 비판 및 홍범도(1868~1943) 형상화에서 강화되고 있는 사회주의 지향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작품이 지닌 기록문학으로서의 의미를 구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의는 솔밭관 군대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연해주 항일무장투쟁과 관련한 연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독립군의 실체 및 그 역사적 의미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2. 1920년 ‘4월 참변’과 솔밭관 군대의 활약

〈아부지와 홍범도〉는 어린 금동의 시선으로 일제의 감시와 탄압 하에 살아가는 고려인의 삶을 다루고 있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육성촌(푸칠로프카)이다. 이 일대에는 19세기부터 고려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였으며, 1910년 국권 침탈 이후에는 가난과 일제의 억압을 피해 조선을 떠난 사람들로 그 수가 상당하였다.⁹⁾ 문

9) “추풍이라면 조선사람이 벌써 러시아에 도강한지 수십년이라 고려사람 수 천호이 러시아에 입적하고 자기 고향과같이 역이여 룡성 허커우 황거우 재 피거우 대전재 등지에 제전토를 깔고 즐비하게 가옥을 건축하고 사는 곳이

금동은 1912년생으로, 〈아부지와 홍범도〉에서는 8세의 나이로 등장한다. 이것이 만 나이일 가능성까지 고려해 본다면 작품은 1919년 혹은 1920년에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22년의 술밭관 토벌 사건이나 육성촌에서 일본군이 철수한 사건도 다루고 있어 범박하게 말해 1920년대 초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권 침탈 이후 해외 독립운동의 거점이 된 연해주에서는 이주 이래 고려인들이 축적해온 물적, 인적 자원을 토대로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으며, 1919년 3·1운동으로 고조된 독립의 기치를 울리며 여러 단체들이 다방면으로 활동을 모색하고 있었다. 일제는 이러한 세력을 제지하기 위해 연해주 지역의 지배력을 강화해 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고려인이 대거 살고 있던 육성촌의 고층 또한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1918년 8월 러시아 원동지역에는 출병한 일본군 헌병대 본대가 니콜스크-우스리스크에 주둔하고 있었고, 서북방의 한인 마을인 푸칠로프카(육성촌)에는 일본수비대 본대가 주둔하고 있었다.”¹⁰⁾ 이렇게 정치적 긴장이 지속되던 중 1920년, 일제에 의해 4월 참변이 발생하게 된다.

1917년 러시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자 러시아 내에는 레닌의 볼셰비키파와 반볼셰비키 백위파 사이에 내전 상황이 벌어졌다. 수십만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연해주 지역 역시 이 혼돈을 피하기 어려웠다. 1918년 4월 일본은 러시아 내의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군함을 상륙시켜 시베리아 출정을 단행했다. 일본의 숨겨진 의도는 이 군대를 통해 백위파 군대를 지원하여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었다. 〈…〉 1920년 3월 5일 아무르강 하구인 니콜라예프스크(니항, 尼港)에서 한·

라 특성은 등탑봉 줄혈에 산이 길게버친 앞에 원인데.” 위의 책, 4~5쪽.

10) 반병률, 『홍범도 장군의 동지 최병준(최의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날으는 홍범도장군』 제26호, 2020, 26쪽.

러 빨치산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섬멸하고, 일본 영사 등을 살해하는 소위 ‘니항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시베리아를 장악하려는 일본 내 강경파에게 본격적인 군대 증파를 위한 좋은 구실이 되었다. 일본군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新韓村)을 기습하여 한민학교(韓民學校)와 한민보관(韓民報館) 등 주요 건물을 불태우고 무고한 한인을 학살하는 한편, 우수리스크와 스파스크 등지에서 학살과 검거를 자행하였다.¹¹⁾ 1920년 4월 일제 침략군이 저지른 빨치산과 민간인에 대한 토벌작전에서 일본군의 만행에 의한 희생자는 5천 명에 이르렀다.¹²⁾

4월 참변은 일제가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 혁명 세력 및 고려인을 대학살한 만행이다. 이때 고려인 사회를 이끌던 최재형(1860~1920)을 비롯한 다수의 독립운동가들과 민간인이 피살당하고, 수십 년간 일궈온 삶의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1920년 6월의 봉오동 전투, 10월의 청산리 전투 등은 이처럼 무자비하게 자행되는 일제의 침략에 저항한 대표적인 독립전쟁이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성격의 독립군 부대가 결성되어 활약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뿌썰롭까, 솔발관, 자피거우 등지에는 게릴라부대들이 배치돼 있었으며 사방이 밀림으로 돼 있어 요새와 다름없었기 때문에 반일투사들이 이곳을 거점으로 정하여 활동하였다.’¹³⁾ 공산주의 성격의 솔발관 군대도 이 가운데 하나로, 이들은 연해주 육성촌 농촌사회를 기반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솔발관 군대는 수이푼(綏芬) 구역 신길동에서 최찬식, 황원오, 최수송 등 동지들의 발기로 1920년 5월경 ‘우리동무’라는 의병대를 조직하였다가, 1920년 7월에 ‘고려공산당’이 조직되면서 ‘공산주의군’이라고

11) 박환, 『페치카 최재형』, 선인, 2018, 255~256쪽.

12)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재러한인 이주사』, 김광환·이백용 옮김, 시대정신, 2004, 195쪽.

13) 김블라지미르, 『러시아대한민족의 항일독립전쟁사 실록』, 조영환 옮김, 고구려, 1997, 28쪽.

의병대 명칭을 고쳤다. 이후 1922년 9월에 고려인의병대가 전체로 통일될 때에 본 군대가 연해도 고려혁명군 제1본대로 편성되어 있다가, 1922년 11월 10일 무장해제 되었다.¹⁴⁾

서사에서 솔밭관 군대는 ‘솔밭관 혈성단’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솔밭관 군대와 혈성단은 연해주의 추풍(秋豐), 또는 수이푼(綏芬)이라 불리는 곳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독립군 부대이긴 하나 이들은 서로 다른 단체이다. ‘혈성단(血誠團)은 1920년에 강국모가 조직한 민족주의적 한인빨치산 부대이며, 솔밭관 군대는 공산주의 성격의 빨치산 부대로서 최찬식, 황원호, 최추송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하였다. 솔밭관 군대는 민족혁명성을 가진 혈성당 군대와 의군부군대 등을 통일하려는 방면에 주력한 바 있다.’¹⁵⁾ 당시 국내에서도 솔밭관 군대와 혈성단이 솔밭관(松田關)에서 함께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기사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⁶⁾

그러나, 이 두 단체는 통합 과정에서 적대관계에 놓인다. ‘1922년 7월경 공산주의군 간부들이 군대 통일 문제를 교섭하고자 혈성단을 찾아갔다가 총살당할 뻔한 일이 발생한다. 이에 고려혁명군 사령부에서 강국모를 영창에 가두고 혈성단 군대를 무장 해제하였다. 이후, 영창에 갇혀있던 강국모는 파옥하고 중국령으로 도피하였다.’¹⁷⁾

솔밭관 군대에서 활동한 이해룡은 회고에서 ‘혈성단의 지도자

14) 반병률, 앞의 책(2020a), 76~77쪽.

15) 위의 책, 77, 278, 317쪽.

16) “露領 松田關에 있는 韓族共產黨 本部는 團員 200餘名이 軍事教練에 努力 중이며 露領 秋豐 荒溝 「시베리칸」 地方에 있던 血誠團 100餘名도 松田關으로 移動하여 韓族共產黨과 合勢 教練 중에 있다.” 《東亞日報》(1922. 10. 25.),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s://www.koreanhistory.or.kr>

17) 국사편찬위원회, 『러시아-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상), 국사편찬위원회, 2008, 145쪽.

강국모가 우리 군대 도장으로 군자금을 거두어 민심이 소동되었으며, 토호들과 지방대를 조직해 우리 공산당 군대를 없애겠다고 하여 그들을 포위하고 혈성단 군인 83명을 우리 군대에 복무하게 했다. 강국모는 그 후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¹⁸⁾고 하였다.

이처럼 별개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문금동이 이름을 혼용하여 쓴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어릴 적 기억의 오류이거나, 비록 결렬되기는 하였으나 두 단체 간 통합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작가가 이들을 하나로 기억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통합 시도가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일본군의 술발관 토벌 당시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군대 본부가 술발관인 점, 무산자(無産者)에 대한 친연성 및 작품의 사회주의적 성격 등을 고려해 볼 때 작품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은 술발관 군대를 지칭하는 것이라 하겠다. 실제 술발관 군대에서 활약한 허승환(許承煥, 1893~1938)이 아버지 친구로 등장한다는 것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당신들이 마음이 그럴진대 여귀에서 서으로 가서 한 백리허에 술발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독립단이 조직된지 수월이 되온대 수천명이 군집되어 줄연과 군병식을 배호니 당신들은 내가 글발을 보내면 접대하오리다. <...> 그 독립군 혈성당 사령관 허승환은 나의 친근한 친구요 대장 최씨는 내가임이 중성대에 중대장 지위에 있을때에 하사로 직무하던 자 외다. 당신들은 하나둘씩 허터지어 명심하여 찾아가시오.

<...>

혈성당 사령관 허승환 의 앞

나의 자필노 글 쓰어올니오는 바는 독립에 자원하고 나선 삼십 일인 군인될사람을 각각 성명을 기록하여 품과리 형식으로 빼빛이 떠나

18) 이해룡(이범진), <술발관 공산당 군대>, 『회상기(아령과 중령에서 진행된 조선민족해방운동)1』,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s://www.koreanhistory.or.kr>

보내오니 사령부에서는 접응하시요.¹⁹⁾

아버지는 독립군이 되겠다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친구인 허승환을 찾아가라 이르고, 그에게 편지를 내어 청년들을 부탁하기도 한다. 허승환(異名: 許承完)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솔밭관 군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1910년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1922년 10월 러시아 군대에 의해 무장해제당한 독립군 부대들을 수습해 고려혁명군을 조직하여 독립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일본 관리를 처단할 목적으로 암살대를 조직하였다. 또한 의열단 대표 자격으로 고려혁명군·적기단 등과 협의해 일제에 대한 연합투쟁을 결의하였으며, 대한신정부 혁명군의 임시 제2중대장으로 활동하였다.’²⁰⁾ 본 작품에서는 ‘독립군 혈성단 사령관 허승환’이라 하고 있으나, ‘그는 솔밭관 군대의 공산주의군 상반기에는 대대장, 중반기에는 독립대장을 맡았으며, 고려혁명군 시기에도 독립대장으로 활약하였다.’²¹⁾ 이해룡은 ‘허승환이 군대 200여명을 영솔하여 궁벽한 촌에서 군대를 편성, 속성 사관학교를 조직하고 인재를 양성하였다.’²²⁾고 밝히고 있어, 그가 솔밭관 군대에서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음이 확인된다.

허승환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대장 최씨’로 가장 가능성이 큰 인물은 최추송이다. ‘그는 우리동무군 조직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19) 『아버지와 홍범도』, 앞의 책, 20~22쪽.

20) 공훈전자자료관,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x.do>, ‘최근, 허승환과 그의 동생 허장완뿐만 아니라 아들 허창일과 조카 허지오(형 허성완의 아들)도 독립운동을 하였음이 추가로 밝혀졌다.’ 〈통영 항일독립운동가 176명 찾았다〉, 《경남도민신문》(2019. 12. 16.),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184>

21) 반병률, 앞의 책(2020a), 78쪽.

22) 이해룡, 〈솔밭관 공산당 빨치산 군대 회상기〉, 『1918-1922년도 국민전쟁 외국무장 간섭자들 침범 시 솔밭관 공산당 군대를 회상하면서』(1957. 12. 12.),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s://www.koreanhistory.or.kr>

공산주의군 시기 상반기에 사령관을 지냈다.’²³⁾ 작품 배경이 되는 1920년의 일이다. 그가 사령관일 때 허승환이 대대장이었다. 이를 문금동이 ‘사령관 허승환, 대장 최추송’으로 두 사람의 직책을 바꾸어 기억했을 가능성이 있다.

솔밭관 군대는 상당한 조직력을 갖추고 연해주 일대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921년 말~1922년 초에 이르러 추풍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독립군 단체로 성장했다.”²⁴⁾ 군대는 육성촌의 솔밭관에 본부를 두고, 추풍 지역 고려인 농촌마을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선전 활동을 펼쳤다는 특성이 있다. 서사에 그려진 솔밭관 군대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나 민가의 가난한 청년들이 솔밭관 군대로 떠나는 장면 등을 통해 이러한 대중화 활동이 민가에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선전활동의 주된 수단은 정기간행물로, 솔밭관 한족공산당의 기관지에는 『군성(群聲)』(군중들의 소리)이라는 신문과 『한살림』(공산주의 생활)이라는 잡지가 있었다.’²⁵⁾ 이해룡은 ‘선포문을 등사판에 인쇄하여 일본 군인들에게 산포하였고, 『군성』을 군인들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공산주의 선전사업을 조직하였다.’²⁶⁾고 회고하였다. 이들은 전투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상운동을 펼치는 등, 세분화된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부지와 홍범도〉는 이처럼 4월 참변을 계기로 결성된 솔밭관 군대의 정체를 확인시켜 주는 한편, 민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23) 반병률, 앞의 책(2020a), 78쪽. ‘최추송 외 솔밭관 군대에서 활약한 최 씨 성을 가진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최찬식(우리동무 의병대 조직에 참여), 최형식(우리동무군 시기 중대장, 공산주의군 시기 상반기 중대장), 최준형(공산주의군 시기 대대장, 고려혁명군 시기 제1대대장), 최호림(고려혁명군 시기 군정위원장),’ 같은 책, 76~78쪽.

24) 위의 책, 314쪽.

25) 임경석,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3, 144쪽.

26) 이해룡, 앞의 글(b).

활약을 서사화함으로써 연해주 항일무장투쟁의 공식적인 기록을 뒷받침,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대가 민가와 연결돼 있음은 금동의 아버지 문승열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아버지는 독립군이 되려는 청년과 군대를 연결해 주는 인물이다. 그는 병으로 아내와 아들, 딸을 잃은 후, 어린 삼 남매를 홀로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오갈 데 없는 고려인을 도와주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군대의 단순 조력자를 넘어 중책을 맡고 있으며, 일제의 의심으로 여러 차례 고문까지 당하지만 군대와 연락을 취하며 비밀리에 독립군 활동을 하고 있다.²⁷⁾

우리 아버지가 집행이를 잡고 몸을겨우 운신하야 집으로 오니 그형상이 참혹하게 되었습디다. 〈...〉 악독한 놈덜이지 사람을 때려도 분수가 있지 때리는 사람이 맥이 진하니 그다음에는 광창호를 불에 싣 범벅케 달과 지지며지쫓 행복이라도 하지않으니 그다음에는 사람을 천정에 각굴노 달고 고초물을 붉은물색 풀듯하여 입에와 코에 부어넣으니 사람이 엇떻게 되었으리요 〈...〉 나의죄가 얼마나 하권대 양상한 가시도친 철판 우으로 걸어 나가라 하는가²⁸⁾

아버지는 청년들을 솔밭관 군대로 보낼 뿐 아니라 일본군에 잡혀온 이들의 탈출을 돕고, 군대와 연락을 취하며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한다. 일본 부대에 쓸 만한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며 그곳의 동태를 살피던 금동은 어느 날 자기 집에 기거하다 솔밭관으로 갔던 청년 독립군들이 잡혀온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솔밭관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허승환의 이름으로 명령서를 써서 독립군을 구출하기 위해 애쓴다.

27) 아버지의 인간적인 면모 등, 작품에 드러난 인물형상화에 대해서는 김현주, 앞의 논문(2018)에서 밝힌 바 있다.

28) 『아버지와 홍범도』, 앞의 책, 9~10, 13쪽.

굴네를 씨이우어 마장에 매듯이 철사에 여긔저긔에 마를 박고 손을 얹어매고 족쇠를 채운 사람덜 있는데로 덜이고 간다. <...> 흥 내엇재 못봤겠니 역그적게도 독립군을 붓잡어다 독립군 서울 주민덜을 칭하여 놓고 연설한후에 일본군대에서 총으로 쏘아 죽인후 불에 사루엇다 그 독립군 의복과 똑같으더라” 29)

아버지 쓰는 편지는 독립군 열한명이 수금된 그들의게 간단히 쓰는 편지였다 그편지의 내용은 엇더한가

수금에서 고통받는 나의독립군들!

당신들은 수금에서 고통을받지만 나의명령을 실행하라 당심들을 내 일 아츰 조사후에 철사를 벗겨놓거던 군영으로 하사는 명명하라 군인 열명은 일시에 일심 동작하야 등탑봉을향하여 뛰라 그리고군인 열 명은 하사의 명명을 실행하라 하사는 빈손으로라도 겁나 말고 “뛰엇” 명명하라 (명명서96호) 허승환 씀 이라하엿더라30)

아버지가 독립군에게 내리는 명령은 때에 맞춰 일시에 등탑봉³¹⁾을 향해 다 함께 도망치라는 것이다. 편지 형식이 아닌 격식을 갖춘 명령서이며 긴박한 상황에서 허승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인 것으로 보아, 아버지가 조직적으로 솔밭관 군대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명령서를 전달하는 이는 일본부대에서 통역 일을 하고 있는 연학이라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그에게 독립군이 잡히게 된 경위를 설명한 후, 군대에게 두 사람에게 책임을 맡긴 일이므로 일의 성공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부탁한다.

29) 위의 책, 54, 58쪽.

30) 위의 책, 65쪽.

31) ‘포석 조명희가 육성촌의 산을 ‘등탑봉’이라 이름 지었다.’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포석 조명희를 찾아서>, 《동양일보》(2014. 11. 23.), [http:// www.dy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34841](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34841)

이번에 독립군 열한명이 체포된 사건은 음력 팔월 초삼일이외다 그들은 열두명이 이륙성에 있는 일본수비대의 군세와 소왕령에 있는 군정부의 연락을 끊으려고 한변으로 전화줄을 끊으며 한변으로 쭈이푹 강 줄판을 없이한후 그들이 직접 대전제-륙성 일본군대 전쟁 요처를 어드려고 솔박관 혈성당 독립단에서 보낸 독립군털인데 솔박관본대에 서 내려오다가 다어재 골에들어 정유하더니 일본군대에서 새벽에 그 집을들너싸고 보초하는 독립군 한명을 죽이고 조심이 덜하게 자는 독립군을 체포하여온 사실인데그들은 지금조사 중에 있나이다 <…>

지금 솔박관 혈성단 형세가 크오니 이번에 이군인털 체포에 중대한 감시를 가지고 있으니 혈성단 참모부에서는 나와연학선생의게 책임을 맞기였으니 만약에 이명령을 실행못하는 때에는 병법으로 참하리라 하였으니 당신과 나는 이번 이일에 좀잘못하면 사생이 위태하오니 죽음으로서 힘써야될것이외다³²⁾

독립군은 일본군의 전화줄을 끊어 통신을 두절시키고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줄판³³⁾을 없앤 후, 일본군대 전쟁 요처를 얻으려고 보내진 사람들이었다. 솔박관 독립군들이 전투뿐 아니라 통신, 교통 등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일제 침략을 제지하는 활동을 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아버지가 어떠한 연락책으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는지는 드러나지 않으나, 독립군의 동태를 세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대와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협력, 그리고 민가 내 형성돼 있는 긴밀한 네트워크 덕분에 결국 다수의

32) 『아버지와 홍범도』, 앞의 책, 69~71쪽.

33) 양쪽 강기슭에 줄을 연결하여 건너는 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환은 함경북도 방언으로, 배를 가리키는 중국어(船: chuán) 발음과 같다. 환은 그의 소설 〈인정루〉에서도 등장한다. 이러한 언어적 특징 및 〈인정루〉에서 북한 지역의 설화를 변용하고 있는 점, 작품의 주요 공간적 배경 역시 북한 지역이라는 점(김현주, 앞의 논문, 2018a, 참조) 등을 고려해 볼 때, 문금동의 부모나 주변 고려인이 북한과 친연성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작품 내 대화체 분석을 통해 보다 면밀히 밝히도록 한다.

독립군이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자”하는 높은소리 한번나더니 어질어질하고 걸지도 못하던 독립군들이 빈총을 꺾구로 쥐고 보조병 여섯놈을 때려부시고 나래가진범처럼 “만세” 소리를 일시에 치며 달으니 일본 군인들은 어망간에 큰 봉변을 당하고 일본군인들은 독립군을 딸구기도 하고 총을병영에 들어가 가지고나와 놓기도하며 하는사이에 벌써 토성을 독립군들은 넘어 뛰어 가독나무산폐로 당진하니 빈손에 딸구던 일본 군인들은 장교호군하여 총을가추어 총을 놓으며 딸구나 벌써 독립군들은 갈데로 다 간것같더라 그런데 토성을 넘을때에 독립군 한명이 실수되어 총에 몇바름 맞아 죽고³⁴⁾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서사에서는 청년들이 독립군이 되었다 붙잡히고, 또 탈출하는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금동이 목격한 것은 소 굴레를 쓰고 있는 독립군, 일제의 총을 맞고 불살라지는 장면,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하는 모습, 독립군을 탈출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포승에 매여 족쇄를 채운 채로 끌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등, 참혹하기 그지없는 일제 탄압의 현장과 생사를 건 독립군의 활약이다. 이러한 투쟁적인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문학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솔밭관 군대에 대한 부족한 역사적 자료를 보완하는 것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독립군 탈출 사건으로 아버지가 다시 잡혀가자, 독립군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내려와 숨어지내면서 금동 집의 밀린 농사일을 대신해 준다. 그리고 얼마 후, 만신창이가 된 채 돌아온 아버지는 독립군에게 그동안 모아두었던 무기와 홍범도에게 주려고 사둔 총까지 모두 내어주며 좋은 기회에 써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리고 총 쏘는 법까지 일러주고 새 러시아 군인 장화도 내어준다.

34) 『아버지와 홍범도』, 앞의 책, 83쪽.

오늘저녁에도 밭에서 자고 형장이 언제 나오는 것을 알아오라기에 집에 형장이 나오기만 하면 나오는 것을 보고 가려한다 그동안 저 빼지 못한 조이도 마조빼고 목격질도 꺾하여 조박이도 하여놓고 저장냥이도 빼고 뜻기도 하면 그사이에 형장이 나오겠지 죄가 없으니 나오면 형장을 보고 인차 가겠다 내가 밭에서 잔단말을 너이들이 일절 하지말나 <...>

내가 폭발탄을 하나 어뎃더니 이번에 적으니 가지고가서 사용하시요 <...>

여보 적으니 내가 홍범도 형을 딜이려고 이런단총 두자루를 싸든 것이 있는데 두단총에 각각 철일백 마흔개씩이네 만약 철일백마흔개 적으면 저쪽총 철을터가지고 가겠는가? <...> 두자루는 발가리 하던 황소를 룡십원에 팔어 싼것이네 못쫓록 간수하여가다가 좋은 기회에 사용하면 한번남자의 먹은마음을 성공할수 있네 필연즉 이번에 올라가면 꼭이단총을 승환이 욕심내여 달나 할것이네 이총을달나 하거던 이번나의거름이 위태하기로 형이 채워보낸 총이니 못하겠다하세 <...>

아버지에게 뜨거운 키쓰를 한다음에는 그가 손을 얹히들어 “조선” 하니 아버지는 “동포”하고 그는 문을 열고 나가 침침한 밤길에 싸라지고 말었다³⁵⁾

이러한 아버지와 독립군의 모습은 군대와 농촌지역과의 신뢰와 결속력이 상당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격적인 활동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하운동의 한 예로, 솔밭관 군대가 속하게 되는 ‘고려혁명군’의 활동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고려혁명군은 교포의 교육계몽에 주력하고 교포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하여 屯田制를 써서 병농일치의 제도를 실시하였다. 무기 구입을 위해 군인들도 농경에 힘썼다. 군대훈련도 비밀히 행하여 표면으로 선량한 농민으로 가장하고 활약하였다.’³⁶⁾ 즉 농사를 지으며 비밀리에 독립군을 돕고, 무기를 모아 건네는 아버지의 모습은 독립군 활동의 일

35) 위의 책, 100~101, 113, 116~118, 120쪽.

36) 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 편집위원회, 『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 하, 육지사, 1989, 932쪽.

면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후 군대의 활동은 전투로 이어진다. 금동의 집에서 독립군이 떠난 지 닷새 후에 일본군과의 전투가 발생한다. ‘1920년으로부터 1922년 9월까지 솔밭관에서 일본군 토벌대와 수삼차 전투하였고, 러시아 백위파,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배후 조종에 의해 조직된 중국 마적 등을 토벌’³⁷⁾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시기적으로 이때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남산에서 드문드문 나는 총소리가 들니엿다 좀 지나서는 속사포 소리 오현발소리 단총소리 마치 가마에서 콩튀는 소리처럼 요란하다 또 길가를 내바다보니 일본군인 두분대가 행진하여 나간다 아버지는 누어 한숨만 쉬고 때때로 시계만본다 밤 열두시반이다 “퐁”하고 대포 소리같은 소리가 들니여 온다 아버지는 혼자말노 이제야 터지는고나 하고 홀노 성수나는 어성으로 말씀하신다 <…>

최영감이 말씀 하시기를

죽해 듣는가 어제 글세 독립군들과 일본군인이 이앞남산 몽도완 제련 등대에서 싸움이 일어나 일본군인이 숭대죽고 군대안에서 통역하던 통사까지 죽엇다오 그리하여 죽은일본군인은 어제 소왕녕으로 실어 가고 통역하던놈은 영 죽지않어 군대안으로 실어오니 필목숨을 지우니 지난밤에 불에 사루엇다오³⁸⁾

독립군과의 전투로 일본군에서는 사상자가 속출하고, 일제에 부여하던 통역관까지 죽는다. 대참패를 당한 일본군이 독립군을 멸하려고 대거 출병하자, 금동이 이러한 동태를 파악하고 아버지에게 알린다. 이에 아버지는 다시 솔밭관 군대 사령부에 편지를 써 전투를 하게 되면 승산이 있을지는 몰라도 조선사람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군대를 피하라고 전달하며 민가와 솔밭관 군대

37)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38쪽.

38) 『아버지와 홍범도』, 앞의 책, 122~123, 146~147쪽.

의 상황을 조율한다. 아버지의 편지에도 방심하고 있던 독립군은 위험에 처할 뻔하나, 다행히 수천 명의 독립군이 일본군을 습격하여 무사 대피를 하게 되고, 또다시 참패한 일본군은 분을 참지 못해 독립군의 군영과 양식 창고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지른다.

본대에 통지하는바는 이번사건으로 소왕영 일본군대 에서 알고 우리독립단을 멸하고 원쑤하기로 일본 군정부에서 대병을 조발하여 수천명 군인과 포병 마병 숫탄 속사포를 가지고 오늘아침에 룡성으로 당도하였쓰니 승부는 있을지언정 추풍등지에 거처하는 조선사람의게 거폐가 돌아 올 듯 하오니 속히군대를 피하시오 <…>

일본 군인들은 독립군 수천명에 습격에 길을 피치 못하고 길을 열어주니 독립군들은 한명도 허실이없이 애양덕 검은폐에 들어가니 아모리 강군인털 엇지그들의 뒤를따루리요 일본군대는 독립군 군대를 식은 죽 먹기로 호계하다가 그만다 빼우고 분기를 못참어 군영과양식 창고에 불을박고 화약고에 불을 지르니 그불이 삼일동안끓지않고 붓뒹다 하더라 아버지는 그소식을 듣고 그들이 명심 없음을 크게 노하였지만 할수 무가넨일이였다 그독립군대는그거름으로 중영지를 넘었다 하더라³⁹⁾

이처럼 서사에서는 전투 장면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독립군도 수천 명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장이라 할지라도,⁴⁰⁾ 솔밭관 군대가 수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전투력

39) 위의 책, 151, 155~156쪽.

40) ‘당 내부문서에 따르면 편성 가능한 군인의 총수는 1천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실제 군대에 편성된 숫자는 그 절반인 500명 가량이었다. 일본군 점령지구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 대병력을 공공연하게 주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뒷받침이 모자란 탓에 가용 인원을 전원 군대에 소집하지 못하고 그중의 일부만으로 군대를 편성했다는 것이다. 편성된 각 부대들도 솔밭관에 동시에 주둔했던 것이 아니다.’ 임경석, 앞의 논문, 704쪽. 솔밭관에서 활약한 유학관은 1921~1922년에 군인 총수가 5백여 명이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솔밭관 공산당 군대〉, 『회상기(아령과 중령에서 진행되던 조선민족해방운동)1』, 한국역사정보통합시

또한 상당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이 전투가 실제로 일제가 솔밭관 군대의 무장투쟁 활동과 확장세를 제지하기 위해 정규군을 파견하고 이들을 토벌하려 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일본군은 1922년 4월 28일 니폴리스크 우수리스크를 출발해, 다음날 솔밭관에 당도했다. 토벌 작전은 5월 2일까지 5일간 계속됐다. 당시 ‘우리동무군’ 3개 중대 가운데 솔밭관을 지키고 있던 병력은 허승환 중대 하나였으며, 솔밭관에 주둔 중이던 병력도 일본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여 후퇴했다. 결국 일본군은 근거지인 솔밭관을 초토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으나, 한족공산당과 ‘우리동무군’ 병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데는 실패했던 것이다.”⁴¹⁾ 서사에서 허승환이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으며, 솔밭관이 공격당하였으나 독립군이 대피하였다는 점 등이 이러한 사실에 부합한다. 이해룡의 회상에서도 일본군이 민가를 불태운 일, 금동의 아버지처럼 독립군이 민가의 피해를 염려하는 것 등, 서사와 유사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⁴²⁾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작품은 솔밭관 토벌 사건 전후에 지속된 일제의 탄압과 이에 대응한 군대의 활약을 모티브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부지와 홍범도〉를 통해 4월 참변 직후에 결성된 솔밭관의 실체, 군대가 육성촌 민가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이 때문에 일제의 솔밭관 토벌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군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청년 독립군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스텝, <https://www.koreanhistory.or.kr>

41) 임경석, 위의 논문, 716~717쪽.

42) ‘일본군이 1922년 4월 29일에 신길동 조선 초가집 49호 전부에 불을 놓고 떠나갔다. 그러나 이중집이 명령하길 만일 일본군을 처단하면 이 지방에 거주하는 조선 주민들이 모두 학살을 당할 것이니 싸우지 말라고 하여 우리 군대는 지척에서 지나가는 일본군을 매복하여 지켜보았다.’ 이해룡, 앞의 글(a).

그중에서 민가에서 활동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었다. 청년들을 군대로 보내는 모습, 허승환과의 직접적인 연락망, 무기들을 모으고 이를 다룰 줄 아는 것이나 군대에 일의 경과를 보고하는 것 등에서 독립군으로서의 아버지 이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문자 해독률이 크게 높지 않던 당시로서 아버지의 이러한 면모는 단순 이주 고려인이라 보기 힘든 부분이다.⁴³⁾ 또한 솔밭관에서 중책을 맡고 있었던 허승환도 여러 차례 이름만 언급되고 있으며 청년들은 이름조차 확인되지 않으나, 잊혀간 독립군이 처음으로 문학적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본 작품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이어나간 솔밭관 독립군의 활약을 복원하는 작업으로서, 이들에 대한 애도(哀悼)의 기록 서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3. 작품에 나타난 사회주의 지향 양상

〈아부지와 홍범도〉는 연해주 일대의 다양한 독립군 단체 가운데에서도 사회주의 성격의 솔밭관 군대를 형상화하고 있다. ‘1919년에서 1920년 사이 연해주 지역에서 결성된 주요 무장단체는 10개 이상에 이른다.’⁴⁴⁾ 이처럼 무수한 독립군 부대들이 항일운동을 하고 있었으나, 단체마다 결성하게 된 경위 및 처한 환경적 요소들은 각기 달랐으며 성격 또한 상이하였다. 빨치산 가운데서도 혈성단이 민족주의를 지향한 반면, 솔밭관 군대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문금동이 이 가운데 왜 유독 이 솔밭관

43) ‘1920년대 중반, 남성의 33%, 여성의 8.8%만이 읽고 쓸 줄 알았다.’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앞의 책, 236쪽.

44) 윤상원, 『자유시사변 전후 조선인 무장부대 통합운동』,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1, 23쪽.

군대를 중심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추정이 가능하다. 우선 솔밭관 군대의 병력이나 활동 범위가 다른 단체들에 비해 컸으며, 어린 금동의 체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활동이 육성촌 일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아버지의 삶,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주도한 스승인 포석 조명희(1894~1938)의 영향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뿐 아니라 평생 구소련의 영향 하에 있는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가난한 노동자로 살아간 작가 삶의 이력과도 관련될 것이라 본다. 그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이듬해 타계하였다. 따라서 단순한 어린이의 시선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급 분화 및 갈등의 문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주의가 표방되고 있는 것은 삶 속에서 형성된 작가의식이 적극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금동의 아버지는 노령 땅에서 제일 부자라는 박승관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다가 현재는 박승관의 아들 박그리골의 소작농을 하고 있다. 박승관은 “추풍지방(하커우, 황거우, 육성촌)의 한인 원호인들이 독립군을 약탈자로 규정하고 니콜스크-우스리스크 일본수비대를 끌어들여 육성촌 박승관 집에 두둔케 하고 자피거우의 혈성단 등 독립군들을 빈번하게 토벌”⁴⁵⁾하였다 라는 기록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문금동과 같은 시기를 살았던 육성촌 출신 최금순의 기록에 박신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박승관과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⁴⁶⁾ 이처럼 역사적 기록 외 본 작품을 통해 육성촌의 실

45) 「박청림이 이인섭에게 보낸 편지: 혈성단의 연혁」(1962.3.2.), 반병률, 앞의 책(2020a), 296쪽에서 재인용.

46) “나, 최 예까찌리나 마하일롭나(최금순)는 1918년에 출생하였다. 룡성촌 소학교에서 조선어를 배웠고 1931년 조명희 선생님에게서 조선문학을 배웠다. 〈...〉 룡성에서 제일 부자는 박신관이었다. 그는 로씨야 총독을 초대해 놓고 소를 잡아 여러 날 연회를 한 적이 있었다. 그 후 박신관은

존 인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것으로, 이는 그만큼 작품 내 형상화돼 있는 계급 갈등이 고려인의 생활사를 사실적으로 반영한 것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계급 갈등의 문제는 고려인의 러시아 입적 유무에서 비롯된 유산계급인 원호인(元戶人, 原戶人)과, 누호인(漏戶人) 혹은 여호인(餘戶人)이라 불리는 무산계급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제정시대에 한인사회의 구성원은 크게 입적한 원호인과 입적하지 않은 여호인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들은 사회경제적·법적 지위가 크게 달랐다. 입적과 동시에 토지를 분급받았던 원호인은 원호인촌에 따로 거주했고, 소작과 고용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여호인 역시 별도로 여호촌을 형성하고 있었다. 부유한 원호인들은 소작과 품팔이로 유지하던 여호인들을 차별하고 착취·억압하는 일이 예사였다.”⁴⁷⁾ ‘이들은 통혼도 하지 않았으며 여호인은 원호인과 한 자리에 앉을 권리도 없는 차별을 당하여 계급투쟁이 극심하였다.’⁴⁸⁾ 봉건적 신분질서가 러시아에서 입적 여부가 만들어낸 계급 문제로 바뀌었을 뿐, 가난을 피해 낯선 땅을 찾아온 누호인의 삶은 고국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서사에서는 일제에 대한 저항만큼 인심이 각박한 원호인에 대한 적대감이 그려지고 있다.

토지를 많이 타고 부자가 되었다. 그는 아들 5형제를 두었는데 모두 장가를 갔고 핏장집(빨간 벽돌집)을 하나씩 지어 주었다. 특성의 모든 핏장집은 그 사람의 아들과 동생들 것이었다. 그러나 그 부인이 폐병을 앓아 죽고 그 다음에 아들 다섯도 다 폐병을 앓아 죽었다. 손자까지 폐병에 죽었다. 박신관의 두 번째 처에게서 난 딸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는 1913년생이다. 그에게는 딸이 둘 있으며 지금 살아 있다.” 고송무, 앞의 책, 23~25쪽.

47) 반병률, 『러시아 고려인사회의 존경받는 지도자 최재형』, 한울, 2020, 224~225쪽.

48) 한국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 홍범도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314쪽.

이 추풍에는 원호이 다 그렇겠오 만은 더러는 사람의 모형을 쓰었지 사람이 아니옵디다 내와같이온 저분시오 찬눈과비를 맞아 축한으로 사람이 겨우걸으며 죽계병이 드는데 한집으로 들어가 어안과 고통을 면코자 주인을 차즈니 글세 대답은 고사하고 로령땅 개가 참 승냥이보다 더 무섭은 개가 있읍디다 줄에 넣은개를 풀어놓으니 엇지 한심하지 않습닛가 이런사람들이 고초가루는 고사하고 생사람을 먹어채치지 않겠오 과연한심한 일이지 나는 돈과밭이 없어 노령땅으로 품을 팔너 들어왔지만 내일죽는수 있더라도 그러지는 못하겠오⁴⁹⁾

누호인들이 일제뿐 아니라 원호인에게도 꺾박받은 현실에 처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서로의 상이한 사회, 경제적 위치는 생활상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내외부의 격변하는 정세와 함께 정치적 노선에도 차이를 낳았다. “원호인-여호인 관계는 시베리아내전 시기의 빈번한 정치적 격동의 와중에서 정치적 대립의 양상을 띠었다. 원호인 중에서도 특히 부유한 원호인들은 반혁명파에 가담하거나 시베리아 출병 일본군과 결탁하기도 한 반면, 여호인의 다수는 빨치산 투쟁과 적위대에 참여해 혁명파에 가담했기 때문이다.”⁵⁰⁾ 이후 “원호인들은 1920년대 말 30년대 초 위로부터의 사회주의화 시기 집단화 과정에서 진행된 ‘토호(土豪)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⁵¹⁾ 이는 그간 축적돼 온 고려인 사회 내 계급 갈등과 이에 따른 정치적 입장 차에서 빚어진 비극이었다.

작품은 이러한 연해주의 삶을 형상화함으로써 사회주의 운동이 태동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1923년, 연해주 인구 가운데 80%가 농민이었으며, 이중 빈농(토지 소규모 보유, 무

49) 『아부지와 흥범도』, 앞의 책, 17쪽.

50) 반병률, 앞의 책(2020c), 225쪽.

51) 반병률, 「1920~30년대 연해주 고려인들의 사회·문화적 상황」, 한국춤문화자료원, 『춤과 지성』 6호, 2014, 10쪽.

소유 또는 낱품팔이)이 65~70%를 차지하고 있었다.’⁵²⁾ 이처럼 농민 대다수가 절대 빈곤에 놓여 있었으며, 서사에서처럼 솔밭관으로 가는 청년 독립군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이해룡도 자신이 ‘여호촌 빈농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토호들에게 착취당하며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에게 비인간적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근근이 살아왔다.’⁵³⁾고 밝히고 있다. 군대의 활동은 이러한 불평등한 삶의 여건이 초래한 현실비판의식 위에 러시아 사회의 격동하는 혁명의 분위기, 그리고 가속화되는 제국주의 침략 속에서 점차 국제적인 계급투쟁의 성격으로 확장돼 나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들의 활동 목적은 조선독립뿐 아니라 계급모순을 타개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원호인-누호인 간의 문제, 사회주의 지향 양상은 작품 후반부에 등장하는 홍범도 형상화에서 강화된다. 서사에서 홍범도를 함께 소재로 삼은 것은 그가 고려인 사회에 상징적인 인물일 뿐 아니라, 솔밭관 군대와 정치적 지향이 동일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홍범도는 솔밭관 군대에서 활동한 바가 없으며, 서로 어떤 영향 관계에 있었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이는 추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홍범도가 ‘우리동무회’라는 청년단체를 조직하게 한 적이 있는데, 솔밭관 한족공산당의 무장부대 이름이 ‘우리동무군’이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부분이다.’⁵⁴⁾ 이름이 우연의 일치로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가 추풍 일대의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군대를 정비하던 때가 있었던 점, 그리고 독립 단체들이 때에 따라 연합을 하기도 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감행하기도 했다는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솔밭관 군대와 전혀 무관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하겠다.

전투가 있는 다음, 오랜만에 일본 부대에 간 금동은 부대가 형

52)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앞의 책, 220~221쪽.

53) 이해룡, 앞의 글(b).

54) 반병률, 『홍범도 장군』, 한울, 2014, 159~160쪽.

편없이 되어 있고 일본군도 모두 없어진 것을 보게 된다.

늦은가을이다 나는 벌써 달근내로 쓰러이 주으라 단니지 앓엿다 오
 늘은 처음일즉히일어나 쓰러이 주으라 아이들과 같이 가앗다 군대집
 으로 당진하니 군대안으로 들어가는 대문에 꼭기우어 바람에기필필날
 니더니 일본기는 없고 쇠줄 장자를 다 뽑아 말둑을 모아 놓고 불을
 박아놓아 불이 붙으며 토성은 그리 튼튼히 쌓앗더니 다맛아놓고 형편
 없이 만들어놓고 군인은 하나도 없다⁵⁵⁾

때는 늦은 가을로, 철병한 일본 부대의 어수선한 모습이 그려지
 고 있다. 일본군이 실제 연해주에서 철병한 것은 1922년 10월이
 다. ‘솔밭관 군대(고려혁명군 제1본진)는 시베창에서 시작해 허커
 우, 황커우를 점령했다. 이에 일본군대는 포위될까 두려워 그동안
 주둔하고 있던 육성촌(푸칠로프카)과 대전자(시넬리니코보)에서
 니콜스크-우수리스크로 철수했다.’⁵⁶⁾ 서사의 배경이 늦은 가을이
 라는 점에서 계절상으로는 일본군의 이 철병 시점과 대략 일치한
 다. 이즈음 어느 날, 금동의 집으로 홍범도 일행이 찾아온다.

홍범도는 아버지와 결의(結義)한 사이로, 금동이 갓 태어났을
 때 그의 집에 다녔었다고 말한다.⁵⁷⁾ ‘홍범도는 1911~1912년 사
 이 추풍 당어재골에서 아편 재배를 하였으며, 1915년 하반기에는
 의병을 이끌고 밀산으로 들어와 한인들의 농사일을 돕게 한 적이
 있다.’⁵⁸⁾ 이는 작가가 태어난 1912년 무렵의 일로 실제 홍범도의
 행적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인용의 홍범도 말

55) 『아버지와 홍범도』, 앞의 책, 175쪽.

56) 황운정, 「솔밭관군대 사업대략」(1966.3.12.), 23~24쪽, 반병률, 앞의 책 (2020a), 364쪽에서 재인용.

57) “세월이 오랏구나 그땃해전에 나는 이집으로 단니엿더니 그때 저놈이 근
 만 출생하여 젓을물처럼 먹던게 저렇게 크게 자랏구나 네일홈이 금동이
 지” 『아버지와 홍범도』, 앞의 책, 177쪽.

58) 반병률, 앞의 책(2014), 158~159쪽.

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연해주로 오자마자 홍범도와 인연을 맺은 것이 된다. 아버지가 애초에 단순 이주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찍이 독립군 활동과 관련돼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홍범도는 누호인의 입장에 선 정치적 태도를 보여주며 레닌사상에 입각하여 계급주의에 대한 비판을 성토했고, 세계 무산계급의 단합을 주장한다.

우리는 민족혁명을 할것이 아니라 한범위벗어져 세계 혁명을 하여야하겠습니까 레닌선생님말삼과 같이 전세계 무산자는 단합하여야 하겠습니까 자본가와 지주를 박멸하며 사회주의 건설에 나서야 하겠습니까 지금 원동에 주둔한 일본군대를 구축하고 백파군대를 우리독립군들과 의병 붉은 군대와 힘을 합하여 박멸하면 장차 우리조선도 그와같이 힘을 합하여 원수들을 박멸하고 혁명이 성공할 것이외다 그렇지 않고 불상한 청년들을 모집하여 여기저기에서 울숙불숙 독립군이 일어나 자유를 찾아함은 원수들의게 혁명열이 가득한 청년들을 불속에 넣는 격식이외다 〈...〉 그리하여 나는 내달노 레닌 선생님이 있는 데로 직접 차저 가려 합니다 그리고 군대 군인들을 비밀히벌써 흑화로 거진다 보내고 거기에 사관까지 열게 작정하였읍니다 〈...〉

나는 레닌선생의 지시대로 붉은군대와 러시아 의병대의 힘을 우리 독립단과 합하여 원동에 웅거한 백파군대와 일본군대를 과멸하고 대승리를 얻은후에 의회주권을 수립하고 조선식민지 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또세계무산 혁명에 참가하려 하나이다

홍범도는 우렁찬 소리로

전세계 무산자는 단합하라! 승리는 우리의게 있다⁵⁹⁾

그는 자본가와 지주를 박멸하며 사회주의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혁명세력인 붉은 군대와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우후죽순 이루어지는 독립군 활동은 아까운 청년 독립군들만

59) 『아버지와 홍범도』, 앞의 책, 183~184, 190쪽.

희생시키는 일이므로 붉은 군대와 힘을 합해 백과 세력과 일제를 몰아내야 한다는 것, 그럼으로써 조선 식민지 해방운동과 세계무산혁명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구호와 같은 홍범도의 주장과 이에 고무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솔밭관 군대가 농촌지역에서 진행한 선전, 선동의 대중화 활동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홍범도의 주장은 러시아 소비에트에 희망을 걸었던 연해주 사회주의 운동의 일면을 보여준다. 솔밭관 군대를 비롯한 사회주의 독립단체들은 러시아 혁명세력에 동참하여 계급 타파를 도모함으로써 꺾박받는 누호인들을 해방시키고, 공공의 적인 일제를 몰아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고려인이 처한 특수한 정치적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해방 이후 한국이 겪는 이데올로기 갈등을 이미 이 당시에 참여하게 겪고 있었던 것이며, 다수의 누호인들에게 불세비키 혁명에 함께하는 것은 사상 차원을 넘어 러시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수십 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생존이 결부된 급박한 현실 문제였던 것이다. 즉 이들의 운동 성격은 독립과 혁명을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과업을 포함한 무산계급의 혁명을 주장하는 것으로, 결국 항일무장투쟁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강화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홍범도는 비밀리에 군인들을 흑하(黑河), 즉 자유시(自由市)로 보내고 사관을 열 작정이라 말하고 있다. 이는 1921년 6월에 일어난 자유시 사변(흑하 사변) 직전, 독립군 통합을 위해 자유시로 집결하던 홍범도 일행의 행적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다. 자유시 사변은 러시아 붉은 군대와 무장해제를 거부한 독립군 사이의 교전으로 수많은 독립군이 희생되는 비극을 초래한 사건이다. “당시 한인 무장부대들은 소비에트러시아정부 및 극동공화국과 일정한 교감 아래 시베리아의 자유시에 모여 극동공화국의 지원 아래 대규모 통합부대를 결성하기로 되어 있었다.”⁶⁰⁾ ‘홍범도의 독립군 군

대는 극동공화국 군부의 무장해제 요청을 받아들이고 자유시로 갔으며, 상하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독립군의 내분과 혁명정부의 한인 무장세력에 대한 전략⁶¹⁾ 등의 문제로 자유시 사변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서사는 1922년 가을, 일본이 철명한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시 참변과 관련된 이야기나 레닌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 홍범도의 말은 실제 행적과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⁶²⁾ 또한 자유시 사변에서 홍범도가 무장해제를 선택한 데 대한 작가의 정치적 견해는 드러나지 않으며, 독립군 내분의 실상 및 당시의 참상도 그려지지 않는다. 대신 건설적인 미래를 확신하는 홍범도 형상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사건 발생의 순서보다 홍범도의 주요 행적에 집중한 데 따른 간극으로 보이며, 자유시 사변에 대한 해석 이전에 결기에 찼던 독립군 활동의 대의적 목적, 그리고 러시아혁명에 기여한 독립군의 역할을 기리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 때문으로 보인다. 즉 고려인 사회에 상징적인 인물인 홍범도를 이상화하고자 하는 작가 자신의 이데올로기 지향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60) 윤상원, 「홍범도의 러시아 적군 활동과 자유시사변」,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178, 2017, 241쪽.

61) 윤상원, 위의 논문. 장세윤,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영웅 홍범도의 독립전쟁』, 역사공간, 2007, 참조.

62) ‘홍범도는 1922년 1월 한인 무장 세력의 대표로 선출되었고 다른 52명의 한인 대표와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그곳에서는 코민테른 주최 제1회 극동 제諸민족대회(일명 극동인민대표대회)가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극동제민족대회가 끝난 뒤 2월 초 순 경에 당시 러시아의 실질적 영도자 레닌을 만났다. 레닌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위로했으며, 범도에게 혁명정권에 협조해줘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였다. 그러면서 홍범도에게 금화 100루블, 군복 한 벌, 범도의 이름이 새겨진 권총을 선물로 주었다.’ 장세윤, 위의 책, 221~223쪽.

나아가 서사에서는 홍범도 일행과 아버지가 공동노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러시아 내전 종결 이후 단행되었던 집단노동을 예고하고 있다.⁶³⁾ “집단주의 농업 구현을 위한 운동의 선봉에 선 이들은 과거 빨치산 운동 참가자들과 한인 극빈층을 형성하던 한인 빈농들이었다.”⁶⁴⁾ 솔밭관 군대의 “허승환이 지휘하던 ‘특립대’ 200여 명도 공동으로 협동농장을 설립했다.”⁶⁵⁾ 또한 홍범도는 ‘1923년에 콤비나트(집단농장) 관리위원장으로 일하며 항일투쟁에 대비하였으며, 1934년부터 강제 이주를 당한 1937년 전까지 콜호즈(농업협동조합)에서 일한 적도 있다.’⁶⁶⁾ 이런 점에서 서사에 그려진 공동노동은 사적인 일손 돕기 차원이 아니라, 러시아 내전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누호인들의 투쟁 및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는 고려인의 정치적 입장을 상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작가는 솔밭관 군대의 활약과 함께 홍범도를 형상화함으로써 계급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정치적 태도를 표면화하고 있다. 홍범도와 달리 솔밭관 군대는 독립군 통합을 위한 자유시 집결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입장에 있었는지도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념적 지향 및 활동 양상에서 여러 유사한 점이 있다. 솔밭관 군대와 홍범도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누호인을 지지 기반으로

63) “1922년 10월 25일 일본군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철수하고 원동공화국의 인민혁명군이 입성함으로써 1918년 여름 이래 5년여간 지속된 시베리아내전이 종결되었다. 11월 16일에는 마침내 1920년 4월 이래 소비에트 정부와 일본 간의 완충국으로 존립해 온 원동공화국이 소비에트 국가에 공식 편입되었다.” 반병률, 앞의 책(2020c), 224쪽.

64) 보리스박·니콜라이 부가이, 앞의 책, 256쪽.

65) 『십월혁명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 69쪽, 임경석, 앞의 논문, 721쪽에서 재인용.

66) 장세운, 앞의 책, 268쪽.

한다. 또한 러시아 내전(적백 내전: 1917~1923) 당시 정부군인 백군(白軍)에 저항하고 혁명 세력인 붉은 군대(赤軍)를 지지한 점에서도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후, 집단노동을 이끌었다는 점에서도 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말하자면 문금동은 솔발관 군대와 홍범도 활약의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작품 전반에서 솔발관 군대의 항일무장투쟁의 현장성을 보여주고, 후반에는 고려인 사회 내 계급모순을 표면화하는 한편, 홍범도 형상화에 집중함으로써 독립운동의 방향성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4. 나가는 말

〈아부지와 홍범도〉는 1920년대 초, 연해주 독립군들이 일제의 노골적인 침략과 러시아 내전이라는 대혼란 속에서 독립운동뿐 아니라 러시아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며 공존을 모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되고 있다. 특히 4월 참변 직후 결성된 솔발관 군대의 항일무장투쟁을 담고 있어 문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 자료적 가치가 높다 하겠다. 본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해주의 대표적인 항일무장 단체인 솔발관 군대의 활약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작품은 군대가 민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성과 또한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식 기록을 뒷받침,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청산리, 봉오동 전투로 대표되는 항일투쟁의 역사를 확장하는 한편, 연해주 현지에서 사회주의 성격의 독립군 활동이 어떻게 평가, 기억되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작품에는 실제 솔발관 군대에서 중책을 담당한 허승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으며, 금동의 아버지 문승열을 비롯하여 청

년 독립군들의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다. 이들을 문학적 소재로 삼은 것은 본 작품이 유일하다. 말하자면 <아부지와 홍범도>는 역사적 조명을 받지 못한 채 잊혀간 독립군에 대한 애도(哀悼)의 서사이자 이들의 삶을 재평가, 복원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금동의 글쓰기는 문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셋째, 솔밭관 군대의 정치적 노선 및 고려인 사회 내 계급모순에 대한 비판의식 등을 통해 사회주의 지향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원호인과 누호인으로 나뉘는 계급 분화와 이에 따른 갈등과 반목 등, 당시 고려인 사회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홍범도는 러시아 혁명 세력인 붉은 군대와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한편, 원호인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고려인 사회 내 계급투쟁 의지를 고취 시킨다. 또한 공동노동을 실천함으로써 이후 러시아 사회의 집단농업화를 예고하고 있다. 홍범도의 이러한 사회주의는 그가 레닌주의에 경도되어 계급주의로 비약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항일무장투쟁의 한 방면으로서 추구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오랜 냉전 이후 고착된 이념적 재단 이전에 고려인의 정치적 상황 및 당대의 시각을 고려한 입장에서 홍범도의 행적을 추적,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문금동은 7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 본 소설을 집필하였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을 볼 때 당시의 독립군 활동이 작가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누호인으로서 살아야 했던 문금동의 가족사, 그리고 평생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간 그의 삶을 고려해 볼 때 본 작품의 소재 및 주제적 특징은 개인적 체험과 함께 오랜 세월 형성된 문금동의 작가의식을 표면화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가 자유시 참변이나 만 25살에 겪었을

강제 이주의 비극을 그리지 않은 것 역시 러시아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지지, 그리고 이에 동참하였던 솔밭관 군대나 홍범도의 행보에 우호적인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지향점은 문금동 개인뿐 아니라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고려인의 정치의식을 추적하는 토대가 된다 하겠다.

다섯째, 본 작품은 노년에 이른 문금동 삶의 회고록이자 고향 육성촌에 대한 향수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1937년 강제 이주로 없어진 한인 마을은 최소 606개 이상’⁶⁷⁾으로 고려인이 오랜 세월 일궈온 삶의 터전은 폐허로 변한 지 오래며, 그가 작품을 쓸 당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고려인의 수도 급속히 감소하던 때이다.⁶⁸⁾ 따라서 작품에 등장하는 산과 강 이름, 지역명, 실존 인물들의 이름 등은 1920년대 언어 및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육성촌의 시공간을 문학적으로 기억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작품은 고려인의 이주사를 밝히는 자료로서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차후 풍부한 역사적 자료 발굴을 통해 본 작품이 지니는 솔밭관 군대에 대한 기록문학으로서의 가치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 조명받지 못한 독립군에 대한 연구와 함께 동시대에 활약한 항일무장 단체와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솔밭관 군대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연해주 독립운동사 연구를 확대하여 소비에트 시대 정치의식의 형성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으로서, 고려인 이주사를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1920년대 러시아 및 중국 이주 문학에서 드러나는 체험적 현장성을 폭넓게 고찰함으로써 본 작품이 유의미한 문

67) 반병률,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 地新墟」,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26집, 2003, 238쪽.

68) ‘러시아 연방 내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인은 1970년 66.8%, 1979년 45.2%, 1989년 36.5%였다.’ 보리스박니콜라이 부가이, 앞의 책, 389쪽.

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 역시 구명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자칫 사라질 뻔한 문금동의 삶과 문학이 국내외 문단에서 지속적으로 기억화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문금동, 『아버지와 흥범도』, 현대문화사, 2017.

2. 논문 및 단행본

고송무, 『쏘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이론과 실천, 1990.

국사편찬위원회, 『러시아·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상), 국사편찬위원회, 2008.

김블라지미르, 『러시아대한민족의 항일독립전쟁사 실록』, 조영환 옮김, 고구려, 1997.

김현주, 「문금동 소설 〈인정루〉 연구」,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77집, 2017, 267~299쪽.

김현주, 「문금동의 자전적 소설 〈아버지와 흥범도〉 연구」,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79집, 2018, 263~289쪽.

김현주, 「문금동의 장편소설 〈인정루〉에 나타난 금기위반 양상에 관한 연구 - 과부(寡婦)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언어학회, 『어문론총』 77호, 2018, 113~138쪽.

김현주, 「〈인정루〉의 ‘고담(古談)’에 나타난 한국 전통설화 변용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142집, 2018, 255~280쪽.

김현주, 「문금동 소설 〈인정루〉에 나타난 가족 이별과 재회 양상에 관한 연구 - 재회 장면의 〈춘향전〉 변용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94호, 2021, 1~38쪽.

김현주, 「소설 〈인정루〉의 고담(古談), 〈어부와 금붕어〉 연구 - 그림형제의 〈어부와 아내〉와 푸시킨의 〈어부와 물고기 이야기〉 변용을 중심으로-」, 영주어문학회, 『영주어문』 49집, 2021, 67~99쪽.

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 편집위원회, 『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 하, 육지사, 1989.

박환, 『페치가 최재형』, 선인, 2018.

반병률,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 地新墟」,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26집, 2003, 209~239쪽.

- 반병률, 「1920~30년대 연해주 고려인들의 사회·문화적 상황」, 한국춤문화
자료원, 『춤과 지성』 6호, 2014, 9~16쪽.
- 반병률, 「홍범도 장군의 동지 최병준(최의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날으
는 홍범도장군』 제26호, 2020, 24~28쪽.
- 반병률, 『홍범도 장군』, 한울, 2014.
- 반병률, 『항일혁명가 최호림과 러시아지역 독립운동의 역사』, 한울, 2020.
- 반병률, 『러시아 고려인사회의 존경받는 지도자 최재형』, 한울, 2020.
-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재러한인 이주사』, 김
광환·이백용 옮김, 시대정신, 2004.
- 윤상원, 「자유시사변 전후 조선인 무장부대 통합운동」,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1.
- 윤상원, 「홍범도의 러시아 적군 활동과 자유시사변」, 한국사연구회, 『한국사
연구』 178, 2017, 233~263쪽.
- 임경석, 「연해주 출발관 한족공산당에 관한 일고찰」, 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
論叢刊行委員會 編, 『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Ⅱ』, 나남, 1997,
684~723쪽.
- 임경석,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3.
- 장세윤,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영웅 홍범도의 독립전쟁』, 역사공간, 2007.
- 한국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 홍범도 편-』,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1995.
- 타치야나 심비르체바·임경화, 「고려인 작가 문금동과 그의 장편소설 〈인정
루〉 소개 및 시론적 고찰」,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35집, 2014, 451~473쪽.

3. 기타

- 공훈전자자료관,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x.do>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s://www.koreanhistory.or.kr>
- 《경남도민신문》,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184>
- 《중앙일보》,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34841>

(투고일: 2023. 1. 31 심사완료일: 2023. 3. 20 게재확정일: 2023. 3. 22)

김현주

소 속: 대구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칼리지

주 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대구가톨릭대학교 성체칠리아관(D17) 347호

전자우편: fussen677@cu.ac.kr

[Abstract]

A Study on the Figuration of the Independence Army in
the Maritime Province in the early 1920s in Moon,
Geum-dong's novel *Father and Hong, Beom-do*
- Focusing on the Solbatgwan Army -

Kim, Hyun-Ju

This work is Moon, Geum-dong's personal memoir and a narrative of mourning for the Independence Army. In particular, it shows that the communist Solbatgwan Army, formed at the time of the 'April Disaster' in 1920, resisted Japanese imperialism based on cooperation with citizen. In addition, it strengthens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socialist construction by encouraging solidarity with the Russian revolutionary force, the Red Army, and the will to fight for classes.

This paper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anded the scope of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by focusing on the Solbatgwan Army, which first appeared as a literary material, and sought out the historical meaning of this work.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the study of the literary history of immigration and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Goryeoin during the Soviet era in Russia.

Key words: Solbatgwan Army, April Disaster, Maritime Province,
Independence Army, Anti-Japanese armed struggle,
Socialism

